

보도자료

로렌스 아부 함단: 지프자파 Lawrence Abu Hamdan: *Zifzafa* 2024. 9. 3 - 11. 3

- 바라캇 컨템포러리, 오는 9월 3일(화)부터 11월 3일(일)까지 로렌스 아부 함단의 국내 첫 개인전 《로렌스 아부 함단 - 지프자파 Zifzafa》 개최
- 로렌스 아부 함단은 연구자, 영화 제작자, 작가, 활동가이자 스스로를 독립 음향 조사관 (Private Ear)이라 지칭하면서 ‘소리’를 통해 작업 세계를 펼쳐 나간다.
- 로렌스 아부함단은 새로 설립한 단체인 이어샷(Earshot)의 팀과 함께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국제 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국제 아동 보호 기구(Defense for Children International), 이스라엘 인권 단체 베첼렘(B'Tselem)과 같은 비정부기구(NGO)와 긴밀히 협력하고 활동하면서 “청취의 정치학” 이 갖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 이번 전시 《로렌스 아부 함단 - 지프자파 Zifzafa》를 통해 아부 함단은 현재 이스라엘 정부가 골란고원 마을에 31개의 풍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는 강압적인 프로젝트로 인해 파생되는 소음과 그 피해 및 영향 관계를 탐구하고 이 프로젝트 이면에 숨겨진 이스라엘 정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전략을 폭로
- ‘지프자파 Zifzafa’는 모든 것을 흔들고 덜컹거리게 하는 바람을 묘사하는 아랍어이다.
- ‘지프자파’는 바람에 의해 변형된 사회적 관계망을 탐색하는 개념적 도구로 작용한다. 지프자파를 추적하면서 우리는 광활하게 열린 공간 속 사람, 꽃가루, 먼지, 동물 사이의 연결을 느낄 수 있다.
- 이번 전시에서 우리는 또한 ‘지프자파’의 휘몰아치는 소음이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제한하고 가두며, 고립시키고 나누는 경계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볼 수 있다.
- 아부 함단은 Earshot의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자울란의 터빈 건설과 그들의 땅에 대한 음파 합병(sonic annexation)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다.
- 이번 전시는 소리와 영상이 일체화된 강력한 조각적 설치 형식의 작품 <바람 앙상블 Wind Ensemble>(2024), 풍력 터빈의 소음이 골란고원의 환경 전체에 흩어지고 전파되는 방식을 컴퓨터 이미지로 생성하고 마치 기름 유출과 같은 종류의 스펙트럼으로 가시화 된 트립틱 애니메이션 작품 <풍차에 맞서기 Tilting at Windmills>(2024), 250m 높이의 풍력 터빈 소리를 시각화한 스펙트로그래프 벽지 작업 <연무 Haze>(2024) 그리고 바람과 소리를 이용해 강탈과 저항의 서사를 전개하는 컴퓨터 게임 작품 <지프자파 - 비디오 게임 에세이 Zifzafa: a video-game essay>(2024)로 구성된다.
- 특히 이번 전시의 중심 작품인 <지프자파 - 비디오 게임 에세이>는 내레이션과 함께 여덟 개의 서술로 구성되는

컴퓨터 게임이다. 아부함단은 Earshot 동료들과 골란고원에 세워질 동일한 250m 높이의 터빈을 갖춘 유럽에서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인 독일 게일도르프(Gaildorf)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기록했다. 그들은 점령된 골란고원의 풍력 터빈이 설치될 정확한 위치에 이 소음의 전파를 디지털 방식으로 지형에 매핑했다.

- 또한 자울란 음악가 부쉐르 칸지 살레와 협력하여 골란고원에서 광범위한 필드 레코딩을 진행했다. 여러 달 동안 소를 비롯해 꿀벌, 천둥, 색소폰, 삽, 결혼식, 늦은 밤, 놀이 시간, 까마귀, 벌새, 지빠귀, 피리를 부는 목동, 자칼, 물 펌프 등의 소리를 마이크로 포착했다. 이 녹음은 사람과 땅 사이의 교감을 담아낸다.
- 아부 함단과 팀은 비디오 게임 플랫폼 내에 가상 지도를 개발하여 <지프자파: 비디오 게임 에세이> 안에 두 개의 터빈의 소음과 골란고원의 소리 풍경의 레이어를 이 비디오 게임 시뮬레이션에 합성했다. <지프자파: 비디오 게임 에세이>는 비선형적 영상이나 다큐멘터리처럼 작동하며, 사용자는 이 비디오 게임을 통해 가상 지도 위의 어느 지점에서든 터빈 소음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의 소리를 경험할 수 있다.
- <지프자파: 비디오 게임 에세이>에서 사용자가 풍력 터빈 소음을 켜면, 이 집들 사이의 원활한 삶의 연결은 소음으로 인해 지워지고 덮어씌워진다. 터빈의 소음, 즉 지프자파는 자울란 공동체를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 세대를 거쳐 내려온 이들의 문화적, 영적, 정치적, 물리적 유대를 포기하도록 강요한다.
-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전투기, 드론, 그리고 헤즈볼라 미사일의 소음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이곳 골란고원에서, GPS와 라디오 신호가 정기적으로 방해받는 이곳에서, 풍력 터빈의 소음은 그들의 가청성을 저해하는 또 다른 음향적 장애물이 될 것이다.
- 시뮬레이션 게임 <지프자파: 비디오 게임 에세이>는 골란 주민들이 변호사와 판사에게 터빈이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크게 들릴지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삶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시연하는 데 사용된다. 이 디지털 시뮬레이션은 이번 전시에서 개인적인 성찰과 미학적 제스처와 함께 사용되어, 박탈, 저항, 그리고 자기결정의 소리를 풀어내는 이야기를 전개한다.
- ‘지프자파’는 21세기에 버젓이 자행되는 이스라엘의 불법적 행위와 이른바 ‘녹색 에너지’ 운동의 명목으로 선전하는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로 인해 이곳 시리아인들이 또다시 식민지적 폭력에 노출된다는 점을 ‘소리’를 통해 드러내는 전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프자파는 풍력 터빈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다수의 목소리’이다.
- 로렌스 아부 함단의 ‘지프자파’ 세계는 소리풍경의 미학, 그것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그 중요성을 시사한다.
- 이스라엘 정부의 야심찬 그린 워싱 캠페인인 풍력 터빈 발전소 프로젝트가 골란고원으로 침투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들과 같은 시간을 살겠지만,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이 “친환경 에너지”의 잔해인 소음과 먼지바람은 그들의 삶을, 몸을 그리고 점차 시간까지도 속박할 것이다. 이 유예된 시간에 갇혀 투쟁하는 자울란 측은 어떠한 자결권도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 점령된 자울란 땅에 풍력 단지 건설이 불가피한 현재 상황에서, 터빈이 소음으로 이 지역을 뒤덮기 전에 이 장소의 소리를 기록하는 아부 함단의 작업은 적어도 디지털적으로 이 경관을 보존하는 행위가 된다. 이는 미래 세대가 잃어버리기 전에 이 순간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며, 지프자파 전시의 관람객들이 이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로렌스 아부 함단의 전시 《지프자파 Zifzafa》와 더불어, **삼청 나이트인 9월 4일 오후 6시와 8시 두 차례** 로렌스 아부 함단의 라이브 오디오 에세이 《나타크 Natq》 개최

바라캇 컨템포러리는 오는 9월 3일(화)부터 11월 3일(일)까지 로렌스 아부 합단의 국내 첫 개인전 《로렌스 아부 합단: 지프자파 Zifzafa》를 개최한다. 아부 합단은 연구자, 영화 제작자, 작가, 활동가이자 스스로를 독립 음향 조사관 (Private Ear)이라 지칭하면서 '소리'를 통해 작업 세계를 펼쳐 나간다. 아부 합단은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 음향 조사를 수행했으며, 이를 독특한 미학적 시각으로 전달한다. 그는 새로 설립한 단체인 Earshot의 팀과 함께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국제 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국제 아동 보호 기구(Defense for Children International), 이스라엘 인권 단체 베첼렘(B'Tselem)과 같은 비정부기구(NGO)와 긴밀히 협력하고 활동하면서 "청취의 정치학"이 갖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그의 음향 작품은 전쟁과 폭력에 노출된 사회의 주변부 사람들과 공명하며, 구체적인 법적 증거와 옹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로렌스 아부 합단: 지프자파(Zifzafa)》는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처음 선보이는 전시로, 모든 것을 흔들고 덜컹거리게 하는 바람을 묘사하는 아랍어이다. 전시에서 이 단어는 바람에 의해 변형된 사회적 관계망을 탐색하는 개념적 도구로 사용된다. 지프자파를 추적하면서 우리는 광활하게 열린 공간 속 사람, 꽃가루, 먼지, 동물 사이의 연결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 우리는 지프자파의 휘몰아치는 소음이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제한하고 가두며, 고립시키고 나누는 경계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볼 수 있다.

2023년, 점령된 시리아 골란고원에서 40년 만에 유례없는 규모의 정치적 소요가 발생했다. 이 시위운동의 중심은 1967년 전쟁 이후 이스라엘 군사 점령하에 살아온 자울란¹ 시리아인들에게 남아 있던 마지막 공터에 31개의 대형 육상 풍력 터빈을 건설하려는 계획이다. 유럽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크기의 풍력 터빈은 주거 지역에서 최소 2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된 시리아 주민들의 집에서 불과 35미터 떨어진 곳에 터빈을 세우려 하고 있다. 견딜 수 없는 소음의 발생으로 이곳 사람들은 자신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아부 합단은 Earshot의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자울란의 터빈 건설과 그들의 땅에 대한 음파 합병(sonic annexation)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그룹은 먼저 동일한 250m 높이의 터빈을 갖춘 유럽에서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인 독일 게일도르프(Gaildorf)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기록했다. 그들은 점령된 골란고원의 풍력 터빈이 설치될 정확한 위치에 이 소음의 전파를 디지털 방식으로 지형에 매핑했다. Earshot은 자울란 음악가 부셰르 칸지 살레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에서 광범위한 필드 레코딩을 진행했다. 여러 달 동안 그는 소를 비롯해 꿀벌, 천둥, 색소폰, 삽, 결혼식, 늦은 밤, 놀이 시간, 까마귀, 벌새, 지빠귀, 피리를 부는 목동, 자칼, 물 펌프 등의 소리를 마이크로 포착했다. 이 녹음은 사람과 땅 사이의 교감을 담았다. 동시에 아부 합단과 팀은 비디오 게임 플랫폼 내에 가상 지도를 개발하여 <지프자파: 비디오 게임 에세이 Zifzafa: a video game essay>(2024)라는 게임 에세이를 만들었고, 두 개의 음향 레이어를 이 시뮬레이션에 합성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가상으로 해당 장소를 걸어다닐 수 있다. 플레이어는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작품 <지프자파: 비디오 게임 에세이> 속 가상 지도 위의 어느 지점에서든 터빈 소음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의 소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게임에서 터빈의 소음을 끄면, 플레이어는 고유한 공간적 경계가 없는 세상, 즉 자칼이 결혼식과 만나고, 까마귀가 플루트 연주자와 만나며, 벌이 원활한 연속성을 갖춘 자체 조직 관계 시스템과 만나고, 경계나 영토, 영해, 또는 영공이 존재하지 않는 연속적인 소리의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지프자파: 비디오 게임 에세이>는 8개의 내러티브로 구성되며 비선형 영화나 다큐멘터리와 같은 기능을 한다. 풍력 터빈 소음을 켜면, 이 집들 사이의 원활한 삶의 연결은 소음으로 인해 지워지고 덮어씌워진다. 터빈의 소음, 즉 지프자파는 자울란 공동체를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 세대를 거쳐 내려온 이들의

1 Jawlan은 골란고원을 지칭하는 아랍어로 Jawlanis는 골란고원의 사람들을 지칭한다. 현재 약 12만명이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드루즈인과 이스라엘에서 이주한 유대인들이다.

문화적, 영적, 정치적, 물리적 유대를 포기하도록 강요한다. 이미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전투기, 드론, 그리고 헤즈볼라 미사일의 소음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이곳에서, GPS와 라디오 신호가 정기적으로 방해받는 이곳에서, 풍력 터빈의 소음은 그들의 가청성을 저해하는 또 다른 음향적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 시뮬레이션 게임은 골란 주민들이 변호사와 판사에게 터빈이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크게 들릴지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삶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시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디지털 시뮬레이션은 이번 전시에서 개인적인 성찰과 미학적 제스처와 함께 사용되어, 박탈, 저항, 그리고 자기결정의 소리를 풀어내는 이야기를 전개한다.

여기에서, 아부 함단은 '지프자파'라는 독특한 형태의 음파 난기류를 추적하며 바람과 소리가 독특하게 얽히는 방식과 그 깊은 의미를 진동과 흐름의 융합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탐구한다. 지프자파는 5만 년 전 화산 폭발로부터 운반된 화산재가 골란고원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면서 자율란 공동체의 생명줄이 된 바람이다. 즉, 골란고원에는 이미 풍부한 바람이 불고 있다. 31개의 풍력 터빈이 이스라엘의 에너지 수요의 0.6%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가는 이스라엘 정부의 풍력 터빈 건설의 진정한 목적이 청정에너지가 아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땅에서 강제로 쫓아내려는 프로젝트라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강조한다.

이번 전시에서 관람객은 풍력 터빈의 소음만 듣는 것이 아니다. 소리와 비디오가 융합된 강력한 조각 설치 작품 <바람 앙상블 Wind Ensemble (2024)>에서 관람객은 자율란족 색소폰 연주자 암르 므다흐(Amr Mdah)의 연주를 경험하게 된다. 이 연주는 풍력 터빈의 건설과 그로 인해 발생할 거대한 소음으로 위협받고 있는 1,300여 개의 농가 중 한 곳의 발코니에서 울려 퍼진다. 이러한 농가의 건설은 자율란 공동체가 수십 년간 땅의 강탈에 저항해 온 도구였다. 이 작품에서 거대한 베이스 앰프의 메시에 투영된 집은 활기찬 소리의 자기 결정권을 표현하는 무대가 된다. 이 자기 결정권은 자신의 땅에서 어떤 소리를 만들고, 어떤 소리를 허용하며, 어떤 소리가 자신의 공동체를 정의하는지를 결정하는 원칙이다.² <바람 앙상블>에서 아부 함단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의 소음 저항에 초점을 맞추며 시작하여, 점차 그 의미를 더 넓은 관점으로 확장해 나간다.

<바람 앙상블> 맞은편에는 <풍차에 맞서기 Tilting at Windmills³>(2024)라는 트립틱 형식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이 작품은 컴퓨터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골란고원 환경에서 풍력 터빈의 소음이 어떻게 확산하는지를 애니메이션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애니메이션은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처럼 풍경을 뒤덮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은 골란고원의 화산, 마을, 그리고 국경을 넘나들며 퍼지는 풍력 터빈의 보이지 않는 소음을 목격할 수 있다. 작품은 1967년 합병 이후,

2 쿠크(Kookh)는 땅을 일구는 도구들을 보관하는 곳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 동물을 위한 우리, 그리고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곳이자 여름에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기도 한다. 쿠크는 도시의 소음을 피하는 장소이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원하는 만큼 큰 소리로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쿠크 안에는 드럼, 갈퀴, 별, 손님, 책, 더 이상 부풀지 않는 풍선 수영장, 타이어체인, 거미, 뱀, 침대, 추억, 저녁 식사, 위스키, 그리고 온갖 언어로의 수다, 애원, 웃음이 모두 담겨 있다. 대부분의 쿠크는 1967년의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군이 이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지어졌지만, 상당수는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다.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할 수 있는 일부 쿠크는 단열이 잘 된 현대식 건물로, 규모는 작더라도 갖출 기능은 다 갖춘 주택이다. 이러한 쿠크들은 풍력 터빈 프로젝트와 더불어, 이 땅이 국제법상 군사적 점령지로 규정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이스라엘 영토로 공식 인정된 트럼프의 정책이 발표된 2019년 이후에 지어졌다. 자율란 사람들은 계속되는 토지수용과 소유권 박탈에 저항하기 위한 전략으로 1967년부터 사과와 체리 나무를 심어 과수원을 꾸렸듯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빈틈을 활용해 많은 쿠크를 건설했다. 로렌스 아부 함단 <지프자파 - 비디오 게임 에세이> 스크립트 챕터 II, "모든 것을 위한 집"에서 발췌.

3 이 작품의 타이틀 <풍차에 맞서기>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의 한 장면에서 차용한 것이다. 『돈키호테』의 한 장면에서 돈키호테와 그의 부하 산초 판사는 지평선에 있는 30~40개의 풍차를 마주하는데, 산초 판사는 풍차를 그저 풍차로 보지만, 돈키호테에게는 그것들이 긴 팔을 가진 거대한 괴물들로 보인다. 돈키호테는 자신이 거대한 괴물이라 믿는 거대한 풍차를 향해 돌진하며 칼을 겨누지만 결국 멈출 수 없는 회전 속에서 풍차의 날개에 맞아 쓰러지고 만다. 풍차를 향해 맞서지 말라는 의미는 상상의 적이나 악을 공격하지 말라는 뜻이다.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돈키호테의 일화는 현재 거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풍력 터빈 반전소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자율란 족들의 상황과 조응한다. 풍력 터빈의 소음이 미치는 음향적 영향을 살펴보면, 두 인물 중 누구의 생각이 더 비현실적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풍력 단지가 자울란인들에게 허락된 골란고원의 5% 땅 중에서 4분의 1을 소음으로 뒤덮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벽지 작품 <연무 Haze>(2024)는 250미터 높이의 풍력 터빈 소리를 시각화한 스펙트로그램이다. 70미터 길이의 터빈 블레이드가 만들어내는 소용돌이치는 소음은 극장의 배경 화면을 연상시키는 시각적 효과를 자아낸다. <연무>는 풍력 에너지의 잔여 효과인 소음이 골란고원에서의 공기 오염을 반영하고, 배경을 변형시켜 이 땅에서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시청각적 은유로 작용한다. 이 시각 작품들은 풍력 발전소 이미지가 현대 사회에서 수행하는 상징적·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재고하게 하며, 미래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그 이미지에 새로운 미학적 체제를 확립하려는 시도이다.

소리를 중심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아부 함단은 군사 점령하에 살아가는 자울란 공동체에 대한 이 프로젝트의 파장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녹색 에너지 도구가 자울란 사람들의 뿌리를 약화하는 무기가 되어 시리아의 자연 자원을 착취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아부 함단의 이러한 주장은 원래 계획된 이스라엘 정착지인 님로드(Nimrod)에서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던 이후, 프로젝트가 불법으로 점령된 자울란 마을 근처로 이전되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골란고원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인권 단체 알 마사드(Al-Marsad)는 이 프로젝트가 ‘그린 워싱(greenwashing)’ 캠페인의 허울을 쓰고 이스라엘 정착민의 식민지 정책을 전략적으로 조종하면서 국제법과 군사 통치하에 있는 공동체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밝혔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걸쳐 온 지속적인 투쟁 속에서, 자울란 공동체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계속 싸워가고 있다.

로렌스 아부 함단의 ‘지프자파’ 탐구는 소리가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청취를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방법의 하나로 탐색하며, 우리가 어떻게 신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주위 세계를 인지하고 각각의 공간을 어떻게 이름 짓고 그 환경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탐구한다. 시인 허수경은 “우리의 몸은 주변에 의해서 시간을 아주 다르게 안아 들인다”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의 야심찬 그린 워싱 캠페인인 풍력 터빈 발전소 프로젝트가 골란고원으로 침투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들과 같은 시간을 살겠지만,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이 “친환경 에너지”의 잔해인 소음과 먼지바람은 그들의 삶을, 몸을 그리고 점차 시간까지도 속박할 것이다. 이 유예된 시간에 갇혀 투쟁하는 자울란 측은 어떠한 자결권도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점령된 자울란 땅에 풍력 단지 건설이 불가피한 현재 상황에서, 터빈이 소음으로 이 지역을 뒤덮기 전에 이 장소의 소리를 기록하는 아부 함단의 작업은 적어도 디지털적으로 이 경관을 보존하는 행위가 된다. 이는 미래 세대가 잃어버리기 전에 이 순간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며, 지프자파 전시의 관람객들이 이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다.

4 허수경,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 | 바빌론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 P.136, 난다, 2018

로렌스 아부 함단: 라이브 오디오 에세이 행사



Image: Lawrence Abu Hamdan, *Natq*, Part of *Lawrence Abu Hamdan: Walled Unwalled and Other Monologues Performance Program*,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2023. Image courtesy of The Museum of Modern Art.

로렌스 아부 함단: 나타크

Lawrence Abu Hamdan: *Natq*

- 일시: 2024년 9월 4일 오후 6시 - 7시, 오후 8시 - 9시
- 장소: 바라캇 서울 (유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58-4
- 문의: contemporary@barakat.kr

개요

바라캇 컨템포러리는 로렌스 아부 함단의 국내 첫 개인전 《지프자파 *Zifzafa*》의 연계 행사로 9월 4일 오후 6시와 8시 두 차례에 걸쳐 아부 함단의 라이브 오디오 에세이 《나타크 *Natq*》를 개최한다.

아부함단의 나타크 *Natq*는 영혼의 환생을 믿는 드루즈 공동체에 속한 아부함단의 먼 친척 Bassel Abi Chaine의 환생 기억에 대한 증언과 이에 대한 아카이브가 포함된 청취 작품이다 (레반트 지역의 종교적 소수 집단이자 골란고원의 주요 아랍 인구인 자울란인들은, 아부 함단의 새로운 프로젝트 *Zifzafa*의 주제이다). 아랍어로 "발화하다"를 의미하는 "나타크 *Natq*"는 또한 죽은 자로부터 살아있는 자로 전이된 말을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 퍼포먼스에서 로렌스 아부 함단은 세대를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지속적인 범죄에 대해 증언하는, 환생한 증언에 관한 청취의 정치학을 탐구한다. "나타크 *Natq*"는 바셀 아비 샤흐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로렌스 아부 함단의 퍼포먼스이다.

아부 함단의 신작 프로젝트 《지프자파》의 배경이 되는 나타크는 레바논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드루즈 공동체에 얽힌 또 다른 숨겨진 전쟁과 정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부 함단은 바셀이 두 세대에 걸친 침묵을 가로지를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다. 한 세대는 자신들이 싸운 종파적 과거를 들추지 않기 위한 필요성과 책임감으로 인해 침묵하고 있으며, 다른 한 세대, 즉 아부 함단의 세대는 전쟁에 대한 역사 교육과 인식의 부재로 인해 침묵하고 있다. (즉, 바젤은 과거와 현재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유령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바셀은 전쟁 후 사면 시기에 자란 젊은 레바논인들이 느끼는 혼란스러운 역사적 소멸을 체감하며, 동시에 마치 여전히 전쟁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생한 전쟁의 회상을 경험한다. 환생한 역사가인 그는 세대 간의 틈을 넘나들며, 아부 함단의 *Natq*를 통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대화를 가능하게 하도록 시도한다.

아부 함단의 라이브 오디오 에세이는 망자가 생전에 사용하고 애장하던 물품들을 무덤에 함께 묻으면서 사후 세계를 믿는 풍습에서 생겨난 꺼묻거리, 특히 불교에서 믿는 윤회 사상과 관련된 유물들이 있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맥락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쟁의 전리품으로 사원, 신전의 벽화 일부나 그림이나 조각으로 장식된 건축물의 일부인 프리즈 파편들과 역사적 기록의 물질적 증거로서 이곳에 거한다. 거대서사에서 밀려난 민간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뺨기 문자, 엑소시즘을 위한 가면들 등 다양한 과거의 기억들이 공존하는 물질적 공간이다. 때로는 삶보다는 죽음에, 현재보다는 과거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바라캣 유물 공간은 현재에 속한 곳도, 과거에 속한 곳도 아닌, 현재와 과거 사이의 시간에 속한 바젤의 기억의 장소와 만남으로써 더욱더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 퍼포먼스가 될 것이다.

전시개요

1. 전시기간

- 2024년 9월 3일 (화) - 11월 3일 (일)
- 10시 - 18시 매주 월요일 휴관

2. 전시 장소

- 바라캇 컨템포러리 (서울 종로구 삼청로 58-4)

3. 전시 연계 행사

- 로렌스 아부 함단 - 라이브 오디오 에세이: 나타크 *Natq*
- 일시: 2024년 9월 4일 (수) 오후 6시 / 오후 8시
- 장소: 바라캇 서울 유물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58-4)

4. 예약 및 문의

- contemporary@barakat.kr
- 02) 730-1948

- 다운로드 (이미지) | 웹하드 아이디 barakatseoul | 패스워드 1234
- 입장 무료 | 월요일 휴관 | 02 730 1948

1. 작가소개

로렌스 아부 함단 Lawrence Abu Hamd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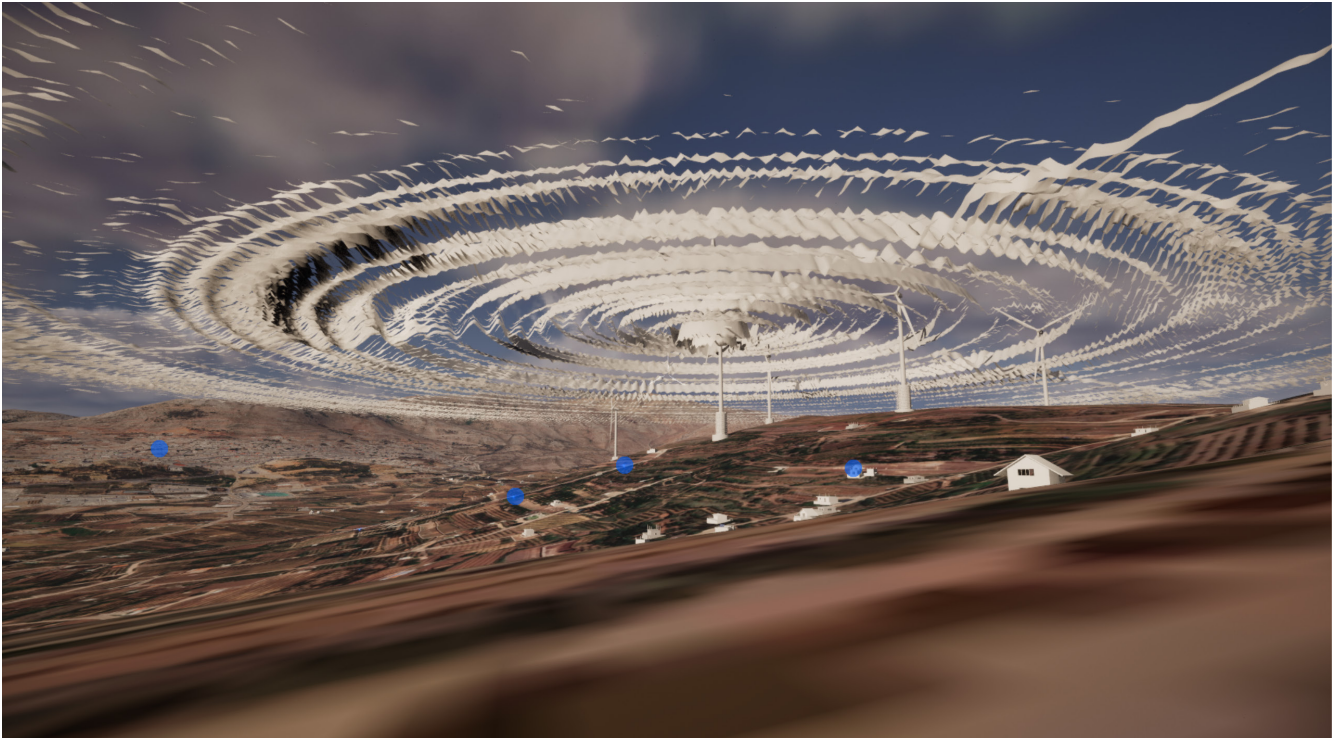
Lawrence Abu Hamdan, profile image.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 Miro Kuzmanovic

로렌스 아부 함단은 영국 미들섹스 대학교에서 음향 현상과 예술적 실험을 결합한 음향 예술을 전공하고,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교에서 포렌식 아키텍처와 함께 활동하며, 이후 법적 조사와 정치적 담론에서 소리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면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부 함단은 시카고 대학교, 뉴욕 뉴스쿨,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 마인츠에서 펠로우십과 객원 교수직을 역임했다. 소리와 듣기의 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그의 프로젝트는 뉴욕 MoMA, 멕시코 MUAC, 제22회 시드니 비엔날레,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 제11회 광주 비엔날레, 제13, 14회 샤르자 비엔날레, 제34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테이트 모던, LA 해머 미술관, 베를린 함부르크 반노프 등 세계적인 미술관 및 기관, 국제 예술행사에 참여했다. 아부 함단의 작품은 레이나 소피아, MoMA, 구겐하임, 함부르크 반호프, 반 아베 미술관, 풍피두 센터, 테이트 모던, 자밀 아트 센터, 카디스트, 샌프란시스코 현대 미술관, 샤르자 예술 재단 등에 소장됐다.

아부 함단은 빈터투어 국제영화제 그랑프리, 2020년 토론토 비엔날레 관객상, 2019년 에드바르 뭉크 예술상, 2019년 영국의 권위있는 현대미술상 터너상, 2017년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최우수 단편영화상, 2016년 최우수 단편영화상, 뉴미디어 부문 백남준 상 등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았다.

2. 주요작품 이미지



로렌스 아부 함단, <지프자파: 비디오 게임 에세이>, 2024

약 40분의 러닝 타임, 가변 크기, 비디오 게임 시뮬레이션, 스테레오 사운드, 조이스틱

사진 제공: 작가 및 바라캇 컨템포러리

로렌스 아부 함단은 *Earshot*의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자울란의 터빈 건설과 그들의 땅에 대한 음파 합병(sonic annexation)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그룹은 먼저 동일한 250m 높이의 터빈을 갖춘 유럽에서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인 독일 게일도르프(Gaildorf)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기록했다. 그들은 점령된 골란고원의 풍력 터빈이 설치될 정확한 위치에 이 소음의 전파를 디지털 방식으로 지형에 매핑했다. *Earshot*은 자울란 음악가 부쉐르 칸지 살레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에서 광범위한 필드 레코딩을 진행했다. 여러 달 동안 그는 소를 비롯해 꿀벌, 천둥, 색소폰, 삽, 결혼식, 늦은 밤, 놀이 시간, 까마귀, 벌새, 지빠귀, 피리를 부는 목동, 자갈, 물 펌프 등의 소리를 마이크로 포착했다. 이 녹음은 사람과 땅 사이의 교감을 담았다. 동시에 아부 함단과 팀은 비디오 게임 플랫폼 내에 가상 지도를 개발하여 <지프자파: 비디오 게임 에세이>(2024)라는 게임 에세이를 만들었고, 두 개의 음향 레이어를 이 시뮬레이션에 합성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가상으로 해당 장소를 걸어다닐 수 있다. 플레이어는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작품 <지프자파: 비디오 게임 에세이> 속 가상 지도 위의 어느 지점에서든 터빈 소음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의 소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게임에서 터빈의 소음을 끄면, 플레이어는 고유한 공간적 경계가 없는 세상, 즉 자갈이 결혼식과 만나고, 까마귀가 플루트 연주자와 만나며, 벌이 원활한 연속성을 갖춘 자체 조직 관계 시스템과 만나고, 경계나 영토, 영해, 또는 영공이 존재하지 않는 연속적인 소리의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지프자파: 비디오 게임 에세이>는 8개의 내러티브로 구성되며 비선형 영화나 다큐멘터리와 같은 기능을 한다. 풍력 터빈 소음을 켜면, 이 집들 사이의 원활한 삶의 연결은 소음으로 인해 지워지고 덮어쓰워진다. 터빈의 소음, 즉 지프자파는 자울란 공동체를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 세대를 거쳐 내려온 이들의 문화적, 영적, 정치적, 물리적 유대를 포기하도록 강요한다. 이미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전투기, 드론, 그리고 헤즈볼라 미사일의 소음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이곳에서, GPS와 라디오 신호가 정기적으로 방해받는 이곳에서, 풍력 터빈의 소음은 그들의 가청성을 저해하는 또 다른 음향적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 시뮬레이션 게임은 골란 주민들이 변호사와 판사에게 터빈이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크게 들릴지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삶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시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디지털 시뮬레이션은 이번 전시에서 개인적인 성찰과 미학적 제스처와 함께 사용되어, 박탈, 저항, 그리고 자기결정의 소리를 풀어내는 이야기를 전개한다.



로렌스 아부 합단, 〈바람 양상블〉, 2024

사진 제공: 바라캇 컨템포러리

로렌스 아부 합단, 〈바람 양상블〉, 2024

12분, 가변 크기, 사운드, 컬러, 1채널 비디오 프로젝션, 증폭기.

이 시청각 설치 작품에 등장하는 자울라니 색소폰 연주자 암르 므다 Amr Mdah가 연주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 풍력 터빈 건설과 그로 인해 발생할 엄청난 소음으로 위협받고 있는 1,300개의 유사 거주지 중 한 곳의 발코니에서 올려 퍼진다. 대부분의 거주지는 수십 년간 자울라니 공동체가 토지수용과 소유권 박탈에 저항하기 위한 전략으로 건설되었다. 이 작품에서, 거대한 베이스 앰프의 메시 위에 투영된 집은 활기찬 음향 자결 행위의 무대가 된다. 이는 자신의 땅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허용할지, 그리고 어떤 소리가 공동체를 정의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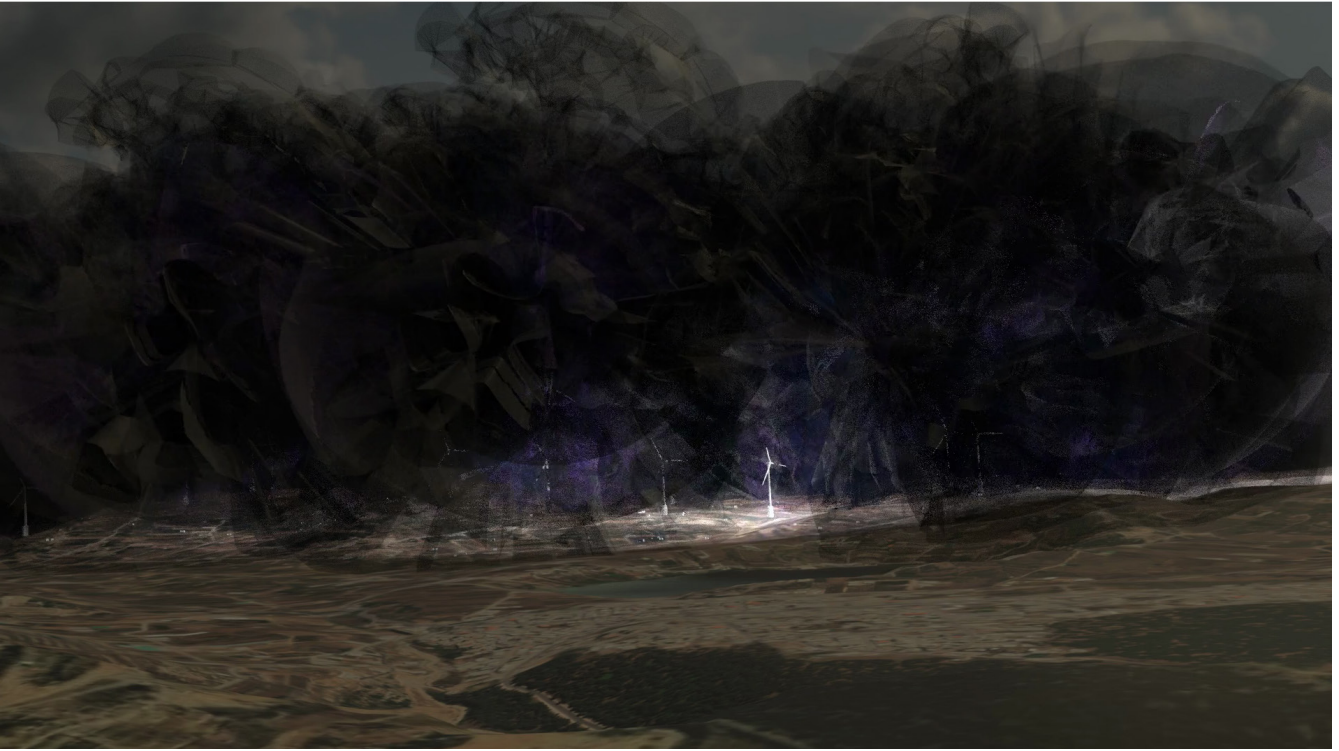


로렌스 아부 합단, 〈연무〉, 2024

가변 크기, 벽지

사진 제공: 바라캇 컨템포러리

이 벽지 작품은 250미터 높이의 풍력 터빈 소리를 시각화한 스펙트로그래프이다. 70미터의 날개가 회전하며 만들어내는 소용돌이는 연극 배경과 유사한 천막 드레이프의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는 배경을 설정하고 시야를 방해하는 경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작품은 바람 에너지의 부산물인 소음을 대기 오염의 형태와 같이 볼 수 있는 강력한 시청각적 메타포가 된다. 이 소음은 배경을 뒤덮고, 환경과 장면을 점유하는 대기 오염으로서 묘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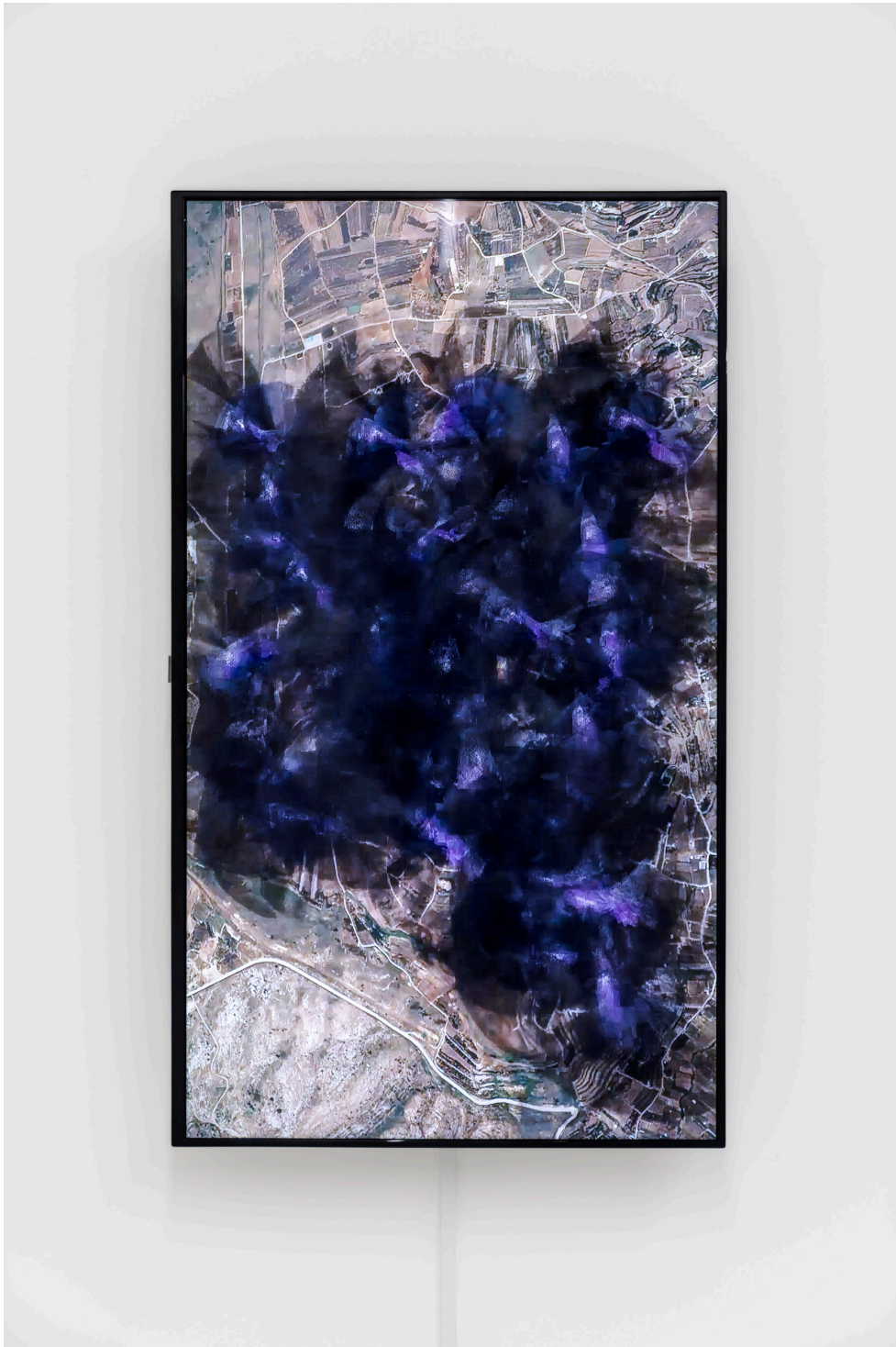


로렌스 아부 합단, <풍차에 맞서기> <풍차에 맞서기 I> <풍차에 맞서기 II>, 2024

6초, 가변 크기, CGI 애니메이션, 컬러.

사진 제공: 작가 및 바라캇 컨템포러리

풍력 터빈의 이미지는 모든 종류의 광고, 브랜드, 스크린 세이버, 학교 교실, 그리고 미래의 세계를 묘사한 거의 모든 렌더링에 스며들고 있다. 이 이미지는 이데올로기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가 되어, 진보를 상징하며 기후 위기에 휩싸인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천연 재생 대체 에너지의 보편적 이미지 역할을 수행한다. 이 이미지는 조용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풍력 터빈이 내는 소음은 오히려 이 청정한 이미지를 복잡하게 만든다. 이 작품은 풍력 터빈이 만들어내는 음향적 난류를 시각화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음향적 소통을 뒤덮을 소음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시도이다.



로렌스 아부 함단, 〈공차에 맞서기〉,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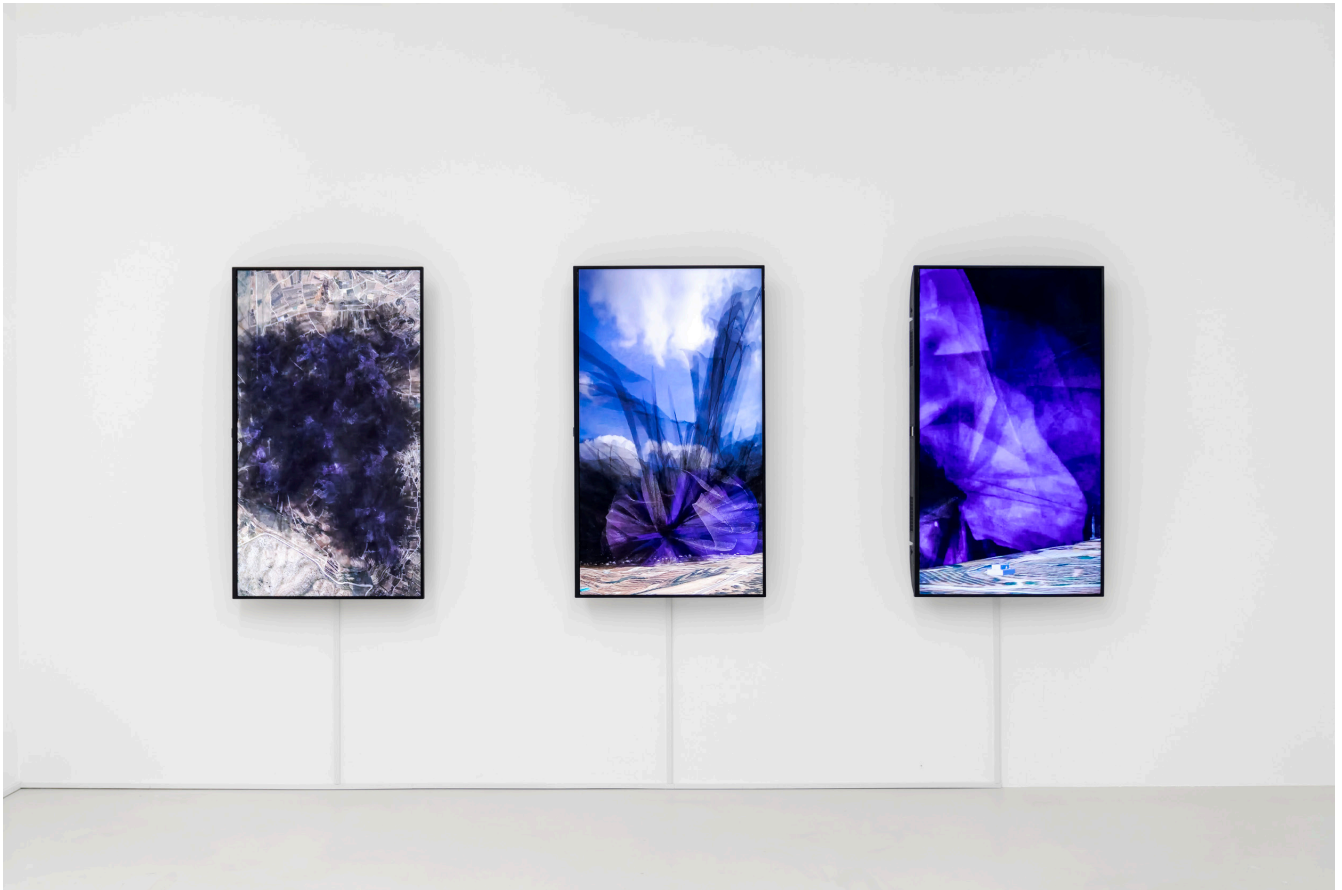
6초, 가변 크기, CGI 애니메이션, 컬러.

사진 제공: 바라캇 컨템포러리

3. 전시 전경



전시전경, 《로렌스 아부 함단: 지프자파》, 바라캇 컨템포러리, 2024
사진 제공: 바라캇 컨템포러리



전시전경, 《로렌스 아부 함단: 지프자파》, 바라캇 컨템포러리, 2024
사진 제공: 바라캇 컨템포러리



전시전경, 《로렌스 아부 함단: 지프자파》, 바라캇 컨템포러리, 2024
사진 제공: 바라캇 컨템포러리

Press Release

Lawrence Abu Hamdan

Zifzafa

September 3rd (Tue) - November 3rd (Sun), 2024

Barakat Contemporary is pleased to present *Zifzafa*, Lawrence Abu Hamdan's first solo exhibition in Korea, from September 3 to November 3. Abu Hamdan is a researcher, filmmaker, artist, and activist who describes himself as a "Private Ear" using sound to shape his artistic practice. Abu Hamdan has conducted sonic investigations in Syria, Lebanon, Palestine, France, and the UK, which he conveys through his distinctive aesthetic vision. Together with his team at the newly founded organization *Earshot*, Abu Hamdan works closely with NGOs such as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Defense for Children International, and B'Tselem, Abu Hamdan emphasizes the essential role of the "politics of listening" in his work. His sound pieces resonate with people on the margins of society, including those exposed to war and violence, and have been utilized as concrete legal evidence and advocacy.

Zifzafa, premiering at Barakat Contemporary, is an Arabic word that describes a wind that rattles and shakes all in its path. In this exhibition the word becomes a conceptual tool to map a network of social relations transformed through and by wind. In tracing *Zifzafa* we feel the connections between people, pollen, dust and animal through the vastness of open space. Yet in this exhibition we also see how *Zifzafa*'s engulfing noise can act as a border that restricts and confines, isolates and divides.

In 2023 political unrest erupted throughout the occupied Syrian Golan Heights on a scale unseen for more than 40 years. The focus point of this protest movement was the looming construction of 31, of the largest land based wind turbines on the last remaining open space left for the Jawlani¹ Syrians who have been living under Israeli military occupation since the 1967 war. Though European

¹ Jawlan is the Arabic word for the Golan Heights, and Jawlanis are the people of the Golan Heights. It is currently home to about 120,000 people, most of whom are Druze or Jewish people who immigrated from Israel.

regulations stipulate that a wind turbine of this size must be at least 2 kilometers away from the nearest residential developments, this project has planned turbines to be erected as close as 35 meters to the homes of the occupied Syrian residents of the Golan heights (Jawlani's), causing an unbearable amount of noise that will effectively force people off their land. With fellow researchers at *Earshot*, Abu Hamdan set about to create a tool that could help the Jawlani's contest the construction of these turbines and the sonic annexation of their lands. To simulate this, the group first measured and recorded noise at the only accessible site in Europe with the same 250 metre tall turbines, in Gaildorf, Germany. They digitally mapped the propagation of this noise onto the landscape in the occupied Golan Heights at the precise locations where these turbines are set to be built. *Earshot* teamed up with Jawlani musician Busher Kanj Saleh to make extensive field recordings in the area itself, capturing the communion between people and land. Over many months, he stuck the mic next to cows, bees, thunder, saxophones, shovels, weddings, late nights, playdates, ravens, bulbul, blackbirds, a shepherd playing the flute, jackals and water pumps. Simultaneously, Abu Hamdan and the team developed a virtual map within a video game platform called <*Zifzafa: a video game essay*>(2024) and convolved both layers of sound into the simulation, allowing a virtual walk through the site. *Zifzafa: a video-game essay* (2024), that at its simplest allows players to move through the site where the turbines will be constructed and hear the area with and without the sound of turbines from any point on the map. However with the turbines off this game also reveals a world without inherent spatial boundaries—a world of connected sounds, where jackals meet weddings, ravens meet flautists and bees meet self organised systems of irrigation in seamless continuity, free of the walls, territories, territorial waters, or airspace that typically define borders. *Zifzafa: a video-game essay* is composed of eight narratives and functions like a nonlinear film or documentary. When the wind turbine noise is turned on, the seamless connection of life between these houses becomes erased, overwritten. The noise of the turbines, or *Zifzafa*, becomes an invisible barrier that isolates the Jawlani community from the outside world, forcing them to relinquish their cultural, spiritual, political, and physical ties to the land that have been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In a place already struggling to be heard through the noise of Israeli and Russian fighter jets and drones and Hezbollah missiles. In a place whose GPS and radio signals are regularly jammed. Here the noise of the wind turbines become a further sonic obstacle to their audibility.

This digital simulation accompanied by a series of personal reflections and aesthetic gestures that are used in this exhibition to unfold a story of dispossession, resistance and the sonics of self-determination. Here, Abu Hamdan traces *Zifzafa*, a distinct form of sonic turbulence in which wind and sound uniquely intertwine and examines its deeper implications 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merging forces of vibration and flow. *Zifzafa* is the wind that carried volcanic ash from an eruption

50,000 years ago, enriching the soil of the Golan Heights, which became the lifeblood of the Jawlani community. Given the existing abundance of wind in the Golan Heights and that the 31 wind turbines will only meet 0.6 percent of Israel's energy demands, the artist highlights the ironic reality that the Israeli government's true motive for building wind turbines in the Golan Heights is not clean energy but rather a project that seeks to dispossess people of their land divide a community whose power resides in their very collectivity.

In this exhibition, the noise of the wind turbines is not the only thing the audience is invited to listen to. In the powerful sculptural installation that fuses sound and video, *Wind Ensemble* (2024), the viewer experiences a performance of Jawlani saxophonist Amr Mdah ring out from the balcony of a farm house of which 1,300 similar sites of habitation are threatened by the looming construction of the wind turbines and the vast noise which they will generate. The construction of such farmhouses have been a tool of resistance to land dispossession by the Jawlani community for decades. Here, the house projected on the mesh of a huge bass amp becomes a stage for an exuberant act of sonic self-determination; the principle that on your land you decide what noise you make, what noise you permit and what sounds define your community.² With *Wind Ensemble*, Abu Hamdan begins at the micro level, focusing on noise resistance within the personal space of the home and gradually expanding its implications to a macro perspective.

Opposite *Wind Ensemble* is *Tilting at Windmills* (2024), a triptych that uses computer-generated imagery to animate the scattering and visualise the propagation of noise of wind turbines in the

2 "A Kookh (Akwakh) can be a home for tools to work the land, a storage for things long obsolete, a Kookh can be a hutch for animals, a place to stay warm in the winter and a shade from the sun in the summer. A Kookh can be a place to escape the noise of the city or a place to play your music as loud as you like and still not annoy your neighbors. The Kookh holds drums, rakes, bees, guests, books, inflatable pools that no longer inflate, tire chains, spiders, snakes, beds, memories, dinner, whiskey, gossip, pleading, and laughter in all kinds of languages. All the sounds of life you hear in this video-game simulation were recorded in and around the 1,300 Kookhs whose habitation is threatened by the looming construction of 31 wind turbines and the vast noise which these turbines generate. Many of the Kookhs stem from well before the 1967 war and the Israeli military occupation of these lands, but many are just a few years old. Some you can book on Airbnb. They are insulated, contemporary constructions that, though modest in size, are fully functional homes. These Kookhs were built more recently, since 2019, in the wake of the announcement of the wind turbine project, which came hand in hand with Trump's policy for the US to officially recognise these lands as belonging to Israel in open defiance of what international law prescribes as a military occupation. Jawlanis built many of the Kookhs stealthily under the cover of the COVID pandemic as a strategy, just like the planting of apple and cherry orchards have acted since 1967, to resist the ensuing expropriation and dispossession of their lands." From Lawrence Abu Hamdan's script for *Zifzafa: a video-game essay*, chapter II, "A home for all things".

Golan Heights environment.³ The animation resembles a large oil spill across the landscape, and through these images, viewers can witness the invisible noise of the wind turbines spreading across the Golan Heights—encompassing the volcanoes, villages, and even the borders. The work shows that of the 5 percent of land still remaining in the Golan heights for the Jawlani's after the 1967 annexation, this wind farm will bathe a quarter of that in noise. Likewise, The wallpaper piece *Haze* (2024) is a spectrograph that visualizes the sound of a 250 meter wind turbine. The spiraling noise created by the 70-meter-long turbine blades evokes the visual effect of a theater backdrop. *Haze* serves as a potent audiovisual metaphor in which the noise, a residual effect of wind energy, mirrors air pollution in the Golan Heights, transforming and overtaking the background and affecting fundamentally life on this land. Together, these visual works are an attempt to think through the symbolic and ideological function that the image of wind farms plays in contemporary society and seeks to establish another aesthetic regime by which to perceive something that is so often used to present a purely positive rendering of our world in the future.

Using sound as a focus of his argument, Abu Hamdan demonstrates the repercussions of this green energy project for a community living under military occupation. The artists work here shows how a tool for green energy becomes a weapon aimed at undermining the roots of the Jawlani people while exploiting Syria's natural resources. His claims are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project was authorized by the Israeli government only after residents of the originally planned Israeli settlement of Nimrod protested, leading to its relocation near an illegally occupied Jawlani village. Al-Marsad, the veteran human rights organisation in the Golan Heights, revealed how this project strategically manipulates Israeli settler colonial policies under the guise of a "greenwashing" campaign, while violating international law and the basic human rights of a community living under military rule. In an ongoing struggle that spans from the past into the present, the Jawlani community in Syria continues their fight for the future of the next generation.

Lawrence Abu Hamdan's exploration of *Zifzafa*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sound as a communal and social experience. By exploring listening as one of the many ways we engage with the world, he investigates how we perceive our surroundings through our bodies, how we name spaces, and how we make sense of our environment. The poet Heo Soo-Kyung noted that "our bodies experience time

3 The title of this work, *Tilting at Windmills*, is drawn from a scene in Miguel de Cervantes' novel *Don Quixote*. In the scene, Don Quixote and his squire, Sancho Panza, encounter 30 to 40 windmills on the horizon. Sancho Panza sees them as mere windmills, but to Don Quixote they appear to be enormous monsters with long arms. Believing the windmill to be a giant, Don Quixote charges forward with his sword, only to be struck down by the relentless spinning of its blades. The expression "tilting at windmills" means attacking imaginary enemies or evils. This somewhat comical episode from *Don Quixote* resonates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Jawlani people, who are fighting a massive Israeli government wind turbine project. Given the acoustic effects of wind turbine noise, it is difficult to decide which of the two characters' beliefs is more far-fetched.

very differently depending on our surroundings.”⁴ If the Israeli government’s wind turbine project—a blatant example of greenwashing—were to invade the Golan Heights, we might share the same time as the Jawlanis, yet the noise and dust winds of this “green energy” would confine their lives, their bodies, and ultimately their time. Though construction of the wind farm on occupied Jawlani land is now inevitable, the work of the artist to document the sound of this site before the turbines bathe it in noise is an act that will at least, digitally preserve this landscape before it is lost to future generations and allowing us the inhabitants of the *Zifzafa* exhibition to share this moment in time.

4 Heo, Soo-Kyung, *I was at the excavation site | A story that started in Babylon* (Seoul: Nanda, 2018), p. 136.

Live Audio Essay by Lawrence Abu Hamdan

Natq



Image: Lawrence Abu Hamdan, *Natq*, Part of *Lawrence Abu Hamdan: Walled Unwalled and Other Monologues Performance Program*,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2023. Image courtesy of The Museum of Modern Art.

Lawrence Abu Hamdan: *Natq*

- Time: September 4, 2024, 6pm - 7pm / 8pm - 9pm
- Venue: Barakat Seoul, 58-4 Samcheong-ro, Jongno-gu, Seoul
- Inquiry: contemporary@barakat.kr

Overview

Barakat Contemporary presents Lawrence Abu Hamdan's live audio essay *Natq* on September 4 at 6pm and 8pm as part of the program accompanying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Korea, *Zifzafa*.

Natq is a live audio-visual essay featuring testimonies and archival material related to the memories of reincarnation experienced by Abu Hamdan's distant relative, Bassel Abi Chaine, a member of the Druze community, which believes in the reincarnation of the soul (a religious minority in the Levant to which Abu Hamdan belongs as well as the main Arab population in the Golan Heights, the subject of Abu Hamdan's new project *Zifzafa*). In Arabic, *natq*, meaning "to vocalize," is also the word that is used to describe speech that has been transmigrated from the dead to the living. *Natq* is a story about another hidden history of war and

politics intertwined with the majority of the Druze community in Lebanon. In this performance, Lawrence Abu Hamdan examines the politics of listening to reincarnated testimonies —accounts from witnesses who can testify to long and continuous crimes that leak across generations and threaten the future. *Natq* is performed by Lawrence Abu Hamdan featuring the voice of Bassel Abi Chahine.

Abu Hamdan's live audio essay will be framed within a new context as it takes place in a space that contains burial objects—items believed to accompany the deceased into the afterlife,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Buddhist reincarnation. This space also contains fragments of friezes from temples and shrines, parts of architectures decorated with paintings and sculptures, all of which serve as material evidence of historical events and war loot. It is a space where various memories of the past converge, including cuneiform records of folk tales sidelined by grand narratives, and exorcism masks. The experience of feeling closer to death than to life, closer to the past than to the present, makes Barakat Seoul a powerful encounter with Bassel's memory sites, which exist as a new category of witnessing neither in the present nor in the past, but in a liminal space between the two.

Overview of the Exhibition

1. Date

- Tuesday, September 3rd - Sunday, November 3rd, 2024
- 10:00 - 18:00 | Tuesday - Sunday

2. Address

- 58-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3. Event

- Lawrence Abu Hamdan Live Audio Essay: *Natq*
- Date & Time: 6PM / 8PM September 4th, 2024
- Venue: Barakat Seoul Antique Gallery
- info@barakat.kr

4. Inquiry

- info@barakat.kr
- +82 2 730 1948

1. About the Artist

Lawrence Abu Hamdan (b.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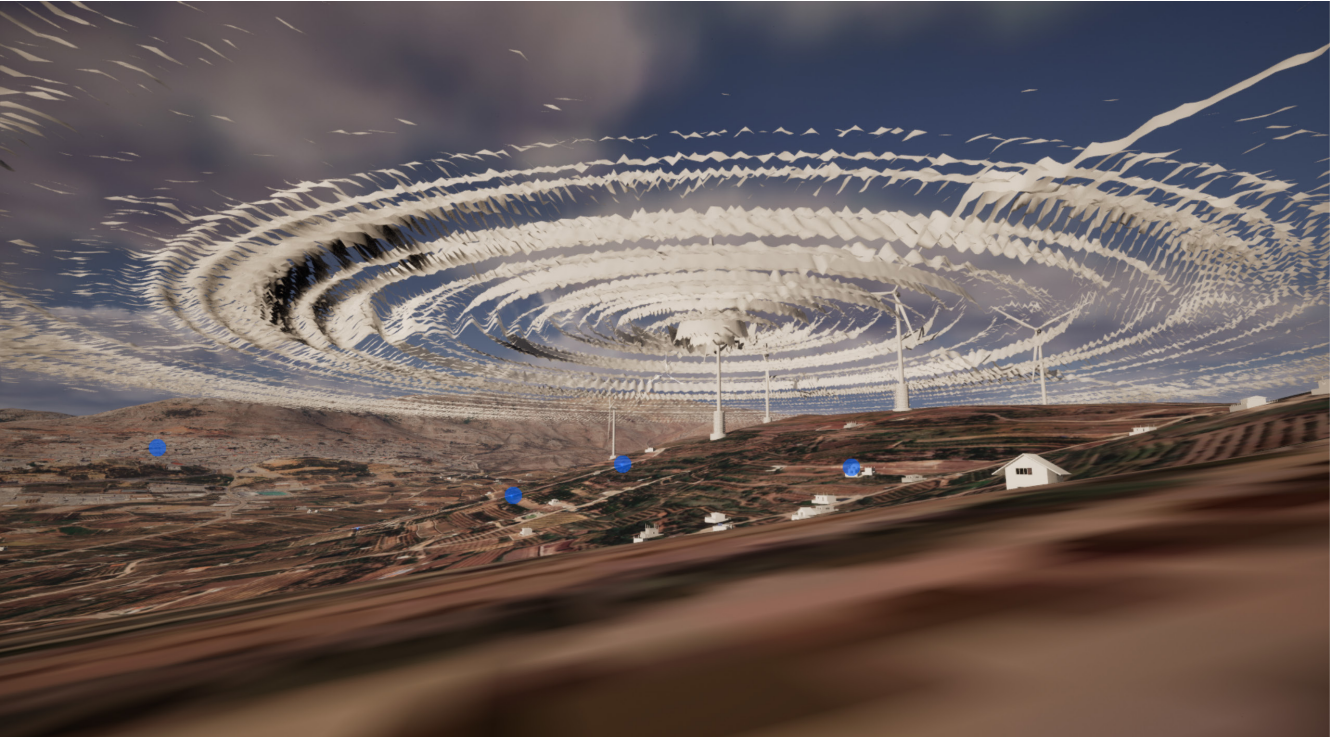


Lawrence Abu Hamdan, profile image.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 Miro Kuzmanovic

Lawrence Abu Hamdan studied Sonic Arts at Middlesex University in the UK, where he combined acoustic phenomena with artistic experimentation. He later completed his MA and PhD at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where he worked with Forensic Architecture, researching the role of sound in legal investigations and political discourse.

Abu Hamdan has held fellowships and visiting professorships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the New School in New York, and the Johannes Gutenberg University in Mainz. His projects, which examine the political and cultural dimensions of sound and listening, have been presented in leading museums and institutions and at major international art events, including MoMA in New York, MUAC in Mexico, the 22nd Sydney Biennale, the 58th Venice Biennale, the 11th Gwangju Biennale, the 13th and 14th Sharjah Biennial, the 34th São Paulo Biennial, Tate Modern, Hammer Museum in Los Angeles, and Hamburger Bahnhof in Berlin. His works are part of the collections of Reina Sofia, MoMA, the Guggenheim, Hamburger Bahnhof, Van Abbemuseum, Centre Pompidou, Tate Modern, Jameel Arts Centre, Kadist,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and the Sharjah Arts Foundation, among others. Internationally acclaimed, Abu Hamdan has won the Grand Prize at the Winterthu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2020 Toronto Biennial Audience Prize, the Edvard Munch Art Award in 2019, the prestigious Turner Prize for Contemporary Art in the UK in 2019, Best Short Film at the Rotterdam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2017 and 2016, and the Nam June Paik Prize for New Media.

2. Major Works



Lawrence Abu Hamdan, *Zifzafa: a video-game essay*, 2024

Runtime 40 minutes approximately, Video Game simulation, Stereo sound, Joystick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Barakat Contemporary

With fellow researchers at Earshot, Abu Hamdan set about to create a tool that could help the occupied Syrians of the Golan heights (Jawlani's) contest the construction of these turbines by simulating how this noise will deeply effect life on their lands. To do this they first began by measuring and recording in Gaildorf Germany, the only accessible site in Europe with these larger 256 meter turbines. The team then digitally mapped the propagation of this noise onto the landscape in the occupied Golan Heights at the precise locations where these turbines were set to be built. In order to simulate the actual effect these turbines will have on the environment Earshot teamed up with Jawlani musician Busher Kanj Saleh who made extensive field recordings of the area. Over many months Kanj Abu Saleh stuck the mic next to cows, bees, thunder, saxophones, shovels, weddings, sahrat, playdates, ravens , bulbul, blackbirds, a shepherd playing the flute, jackals and water pumps. All the sounds that Kanj Abu Saleh felt captured the commune between the people and their land. These recordings were then geolocated these recordings on our map and inserted the recordings with the ones from Germany into a video game platform.



Lawrence Abu Hamdan, *Zifzafa: a video-game essay* (still image), 2024
Runtime 40 minutes approximately, Video Game simulation, Stereo sound, Joystick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Barakat Contemporary

In this simulation residents of that area can virtually walk into their land, and hear directly how loud the turbine will sound from that or any location on the map. This simulation can then be used to demonstrate to lawyers and judges exactly the way their lives will be affected. Moreover should these turbines finally be constructed, this video game simulation, will serve another purpose entirely. It will serve as an archive of how the area sounded before the turbines came. All the recordings Kanj Saleh made capture the character of the place and should that character be fundamentally altered by the imposition of these turbines then the game will be a place where the sound of life before the turbines will remain audible. It is in these sounds that we invite the audience in this gallery to spend time listening. Together with the voice-over that can be found at the 8 sites where the player encounters the freestanding megaphones, these sounds form a non-linear audiovisual essay about the sonics of self determination.



Lawrence Abu Hamdan, *Wind Ensemble*, 2024

12 minutes, dimensions variable, sound, color, single-channel video projection, Amplifier.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Barakat Contempo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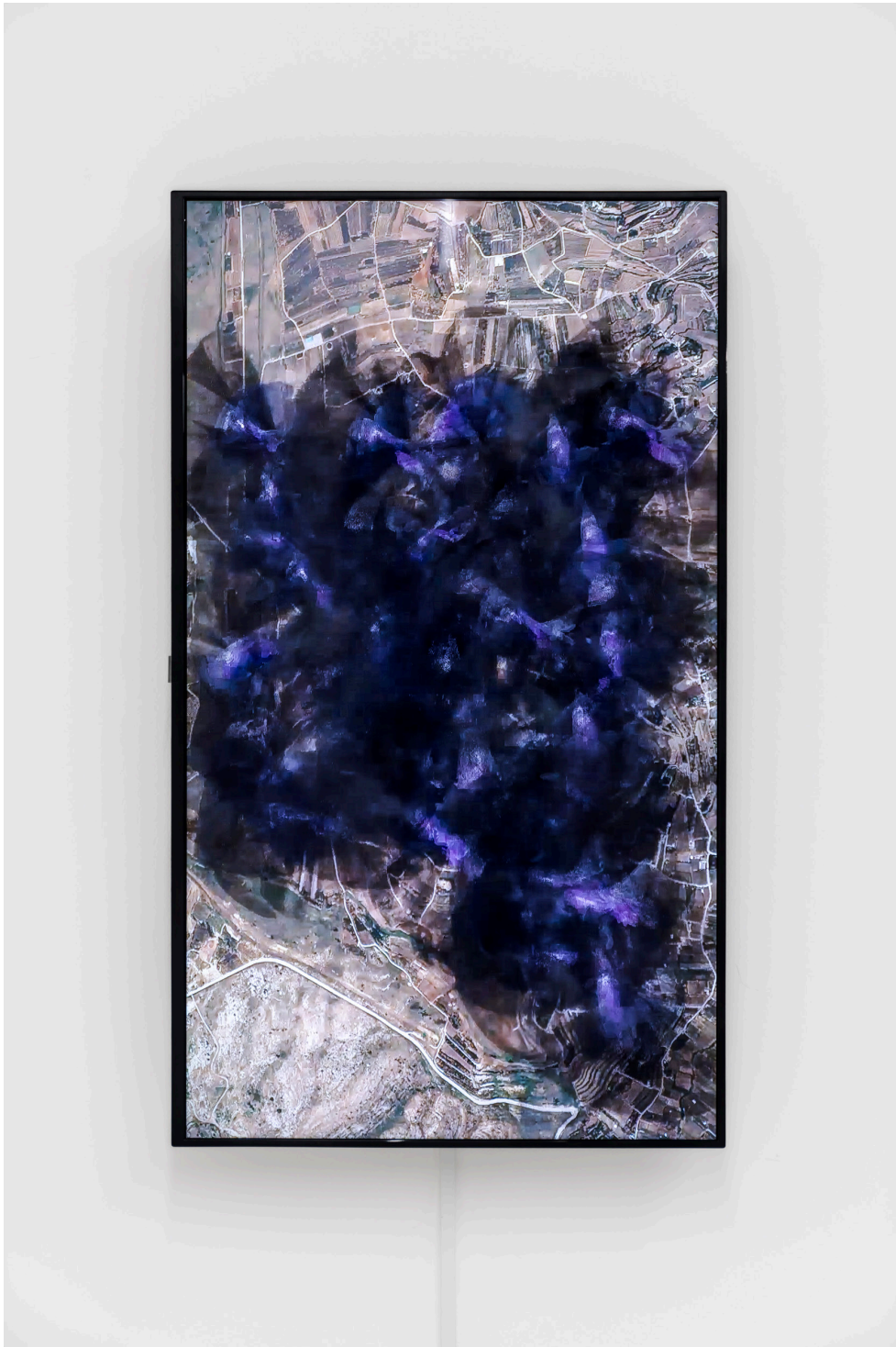
This audiovisual installation documents a performance of Jawlani saxophonist Amr Mdah ringing out from the balcony of a farm house of which 1300 similar sites of habitation are threatened by the looming construction of the wind turbines and the vast noise which they will generate. The construction of such farmhouses have been a tool of resistance to land dispossession by the Jawlani community for decades. Here, the house projected on a the mesh of a huge bass amp becomes a stage for an exuberant act of sonic self-determination; the principle that on your land you decide what noise you make, what noise you permit and what sounds define your community.



**Lawrence Abu Hamdan, *Tilting at Windmills*, *Tilting at Windmills i*, *Tilting at Windmills ii*, 2024
6 seconds, dimensions variable, CGI animation, colour.**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Barakat Contemporary

The image of Wind turbines leak into all manner of advertisements, branding, screensavers, school classrooms and almost all renderings of our world in the future. It has become a form of ambient communication, an ideological image that emits progress and acts to calm the nerves of those consumed by the climate crisis. Its an image that speaks. Softly it says “everything will be alright”. But its actual voice, the noise it makes, complicates this pristine image. This work is an attempt to visualise the sonic turbulence created by wind turbines and showing the amount of acoustic space they consume.



Lawrence Abu Hamdan, *Tilting at Windmills*, 2024
6 seconds, dimensions variable, CGI animation, colour.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Barakat Contemporary



Lawrence Abu Hamdan, *Haze*, 2024
dimensions variable, wall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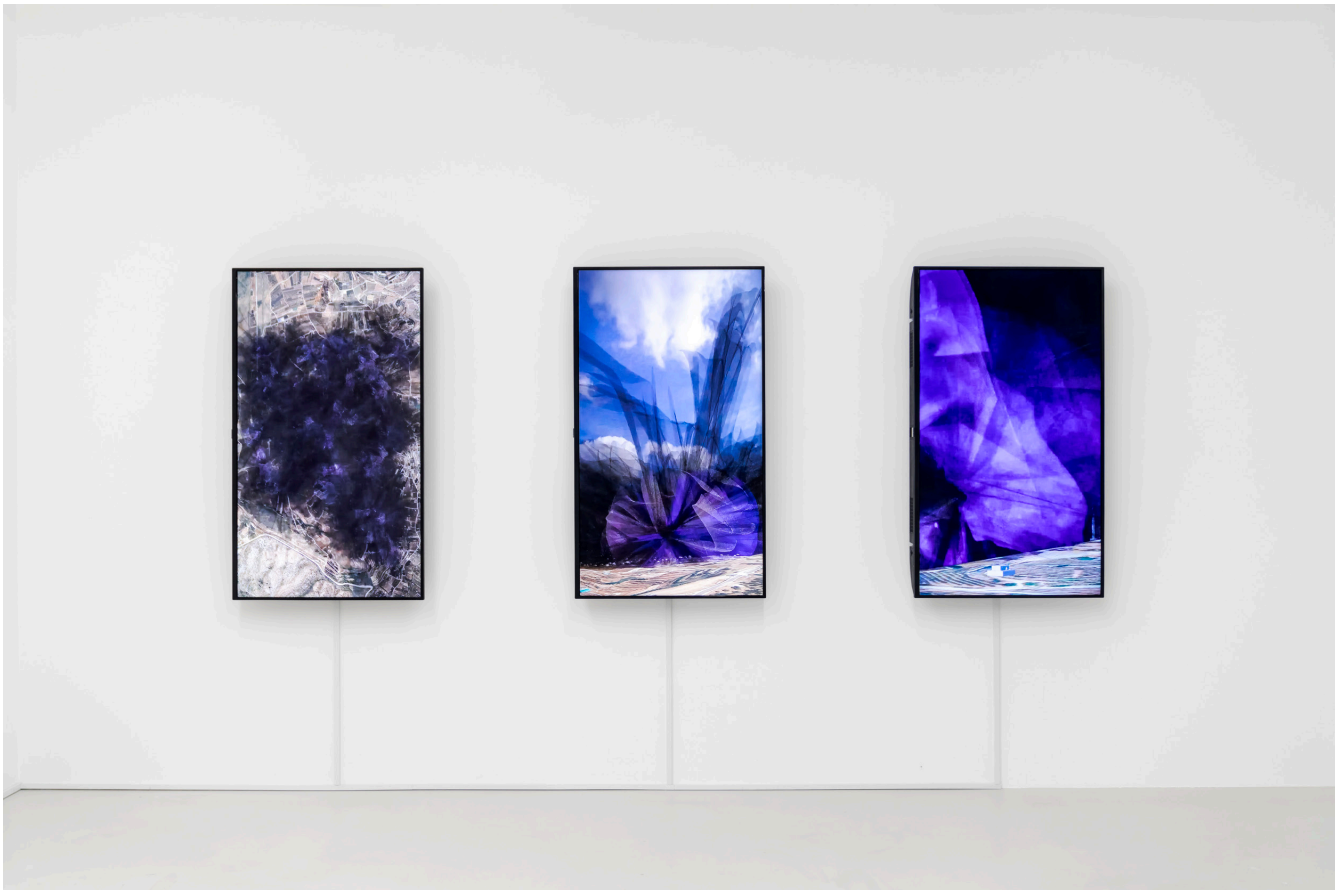
Image courtesy of Barakat Contemporary

This wallpaper work shows a spectrograph, a visualisation of the sound of a 250m wind turbine. The spiralling rotation of the 70m blades produce a visual effect of a fabric drape not dissimilar to a theatrical backdrop. Both establishing a milieu and a boundary that obstructs lines of sight. In this way it becomes a potent audiovisual metaphor for thinking about the waste product of wind energy, noise, as a form of atmospheric pollution that engulfs and occupies the background, the setting, the scene.

3. Installation views



Installation view of Lawrence Abu Hamdan: *Zifzafa*, 2024
Barakat Contemporary, Seoul, Korea
Image courtesy of Barakat Contemporary



Installation view of Lawrence Abu Hamdan: *Zifzafa*, 2024
Barakat Contemporary, Seoul, Korea
Image courtesy of Barakat Contemporary



Installation view of Lawrence Abu Hamdan: *Zifzafa*, 2024

Barakat Contemporary, Seoul, Korea

Image courtesy of Barakat Contemporary